

3~4國 정상 '한반도 終戰회의' 추진

서해, 평화협력특별지대로... 공동어로구역 설정·해주특구 건설

盧대통령·金위원장 10개항 공동선언

- ① 6·15 공동선언 고수·적극 구현
- ② 남북 상호 불간섭·통일지향 법률 정비
- ③ 군사적 신뢰 구축... 국방장관 회담
- ④ 정전체제 종식,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
- ⑤ 경제협력 투자 장려·특혜 부여
- ⑥ 백두산 관광... 백두산~서울 직항로 개설
- ⑦ 이산가족 상봉 확대... 상시 진행
- ⑧ 국제무대서 민족 이익 협력 강화
- ⑨ 남북정상 수시로 만나 현안 협의
- ⑩ 내달 서울서 남북 총리회담 개최



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.

/평양=청와대 사진기자단

盧대통령, 어제 육로 귀환 ▶ 3·4·5·6·7면

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은 4일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 등을 포함한 3~4개국 정상들이 한반도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.

두 정상은 또 민족경제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을 확대·발전시키기 위해 서해안 지역에 '평화협력특별지대'를 설치하고 공동 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, 경제특구 건설과 현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.

두 정상은 이날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숙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항의 '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'에 서명했다.

두 정상은 또 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남북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키로 해

실상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에 합의했으며,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다음달 중 서울에서 제 1차 남북총리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.

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, 서해 북방한계선(NLL)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'평화수역화'하는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해 내달 중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열기로 했다.

또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와 문산~봉동간 철도화물 수송, 통행·통신·통관 등 '3통(通)'에 대한 제도적 보장조치 완비, 개성~신의주 철도와 개성~평양 고속도로 공동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 등을 협의키로 했다.

두 정상은 남북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'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'를 부총리급 '남북경제협력공

동위원회'로 결성시키기로 했다.

노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한 직후 김 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마련한 환송 오찬에 참석, 석별의 정을 나눴다.

노 대통령은 이날 귀경길에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찾아 근로자들을 격려했다. 노 대통령은 남측 CIQ에 도착, 대국민 방북 결과보고를 한 뒤 청와대로 향했다.

정부는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범정부차원의 후속조치 및 접점체계를 가동하고, 특히 후속조치가 관련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.

/평양=남북정상회담 공동취재단 정호식기자 who@kwangju.co.kr

디자인으로 세계평화 구현

오늘 디자인비엔날레 개막... '평화선언' 발표

'빛 LIGHT'를 주제로 한 '2007 광주디자인비엔날레'가 5일 개막, 3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.

이날 개막식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, 박광태 광주시장, 박준영 전남지사, 피터 채 국제산업 디자인단체협의회장, 자크 랭 세계그래픽디자인협회장, 이탈리아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맨니니 등 초청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다.

/운영기자 penfoot@

